

UC 탐방 -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반도체장비 선구자의 멈추지 않는 성..공..신..화..

평범한 엔지니어에서 연매출 2천억원을 달성하는 벤처 기업 리더로 거듭나, 벤처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올해 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그의 행보는 더욱 바빠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재 발굴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일궈낸 10년의 발자취와 벤처 재도약의 선봉에 선 황대표의 포부를 들어보자.

세

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의 20%를 점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이하 주성).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추진력을 갖춘 황철주 대표는 회사 설립 10년 만에 주성을 글로벌기업으로 키워냈다. 특히 지난해는 영업이익 350억원, 당기순이익 34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매출도 6배나 증가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2001년 벤처열풍의 후폭풍을 맞아 잠시 시련을 맞았던 황대표로서는 3년 만에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수밖에 없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237억원을 매출 목표로 잡았다. 납기대응력, 원가경쟁력, 제품생산성 모두 경쟁사보다 30% 이상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로 'World's Best 330'이라는 표어까지 내걸었다. 이 여세를 몰아 2010년 안에 세계 최대 전공정장비 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다.

반 도 체 장 비 에 모 든 것 을 걸 었 다

30대 초반, 유럽 반도체 장치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황대표는 그때부터 세계 1등의 장비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CVD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부러 장비를 고장 내기도 하고, 10년간 틈틈이 기술을 분석해 자료화한 것이 트럭 한 대분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한 집념이야말로 오늘날 주성이 존재하게 된 원동력. 서서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황대표는 반도체장비분야에 관한 한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결국 95년에 주성을 설립했다.

“올해로 창업 10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창업 초기 직원들과 밤을 지새우며 신제품 개발에 골몰하던 시간들이 눈에 선하군요.”

지금 주성이 생산하는 반도체장비는 ‘플라즈마 화학증착장비’(PECVD)와 ‘화학증착장비’(CVD), ‘원자층증착장비’(ALD), ‘식각장비’(드라이에처) 등. 이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이 분야에 진출해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생산할 수 없는 장비들이다. 97년 대만에 CVD장치를 수출하면서 해외수출의 물꼬를 연 주성은 현재 전체 매출의 56%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

“기술력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었지만 주성의 지명도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외수출에 있어 고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출 달성에 급급해하지 않고 고객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매출이 급증하고 시장점유율도 오르더군요.”

기술력은 기본이요, 마케팅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황대표의 지론이다. 여기에 우수한 인재가 더해지면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를 다 갖춘 셈. 주성은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 시스템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직원의 58%를 차지하는 연구원들이 독창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주성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출원된 580여 건의 특허가 주성의 경쟁력을 증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국내 코스닥 등록기업 전체 특허건수의 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만큼 회사 측의 지원도 상당하다.

일 류 경 영 을 꿈 꾸 는 휴 머 니 스투

황대표의 경영철학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일류 회사를 지향하는 것이다. 주성의 장비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최고의 경쟁력을, 투자자에게는 높은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직원들의 복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직원들에게 세계 최고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는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직원들이야말로 주성의 최고 자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는 때에 직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해주고 은퇴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다 소진하고 나면 미련 없이 뒤로 물러나 주성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는 황대표. 주성의 성공 밑거름이 되어준 직원들에게 공(功)을 돌리는 그의 모습에서 휴머니스트로서의 면모가 유감없이 묻어난다. 직원들에게도 늘 ‘당당하라’는 주문을 할 만큼, 그는 자신이 품고 있는 목표를 꼭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충천해 있다. 10년 전 열정과 패기만으로 시작해 지금의 주성을 일구어낸 그이기에 일류 기업의 꿈 역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소벤처기업이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유연해지고 건실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벤처산업 부흥, 벤처기업인의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협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협회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게 된 황철주 대표가 밝힌 소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주성엔지니어링의 부흥이 벤처산업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 성 의 힘! 태 극 기

주성엔지니어링 신관을 장식하고 있는 커다란 태극기. 보는 사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이 태극기는 지역의 명물이 될 정도로 유명하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 방문객들도 태극기를 보면서 해이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고, 태극기를 접할 때마다 주성을 떠올려 달라는 의미도 숨어 있다. 4~5년 전 황철주 대표가 미국 출장을 다녀오다 건물에 성조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벤처마킹한 것이다.

